회전성형용 LLDPE“ 먹구름 ”

수요둔화 및 공급기업간 경쟁심화로 가격하락 … 대량생산 한계

국내 회전성형용 LLDPE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합성수지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원료수지 생산기업들이 활황을 맞고 있는 반면 회전성형용 LLDPE 시장은 공급기업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전성형용 LLDPE는 91년까지만 해도 한화종합화학이 독점공급하면서 톤당 93 94만원이던 것이 이후 유공을 비롯해 현대석유화학·삼성종합화학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 94년 12월 현재 톤당 68 72만원으로 20만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전성형용 LLDPE 공급현황(1994)
(단위 : M/T, %)

구 분	수 량	점유율
유 공	6,000	40
현대석유화학	3,600	24
삼성종합화학	3,000	20
한화종합화학	2,400	16
합 계	15,000	100

이같은 가격은 초기 회전성형용과 범용의 가격차이가 약 20만원을 나타낸 것을 감안할 때 큰폭의 가격하락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12월말 현재 범용LLDPE가 72 73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범용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94년 회전성형용 LLDPE 수요는 총 1만5000여톤으로 93년 1만2000톤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국내 회전성형용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 수요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급기업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전성형용은 아직 국내에서는 LLDPE만 사용되고 있으며 유공을 비롯 현대석유화학·삼성종합화학·한화종합화학 등 4개기업에서 공급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유공이 전체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전성형용 시장을 독점해왔던 한화종합화학은 20% 미만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성형은 일반적으로 속이 빈 대형제품이나 모양이 복잡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플래스틱제품 성형방법으로 국내에서는 물탱크 및 화학탱크 등 대형 탱크류와 정화조·플래스틱 컨테이너 등의 제작에 응용되고 있으며 일부 복잡한 완구류의 생산에도 응용되고 있다. 회전성형은 대형제품 및 소량다품종제품 생산에 적합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대량생산에는 부적합해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회전성형용수지는 일반 범용과는 달리 복잡한 모양에도 균일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고 적당한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후제를 비롯한 고가의 첨가제를 사용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대림산업은 충격강도 및 물성을 개선한 회전성형용 HDPE수지를 개발, 95년부터 생산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 회전성형용수지의 가격하락으로 고가의 HDPE가 회전성형용으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16>